국제교류교육원 해외 단기 어학연수 보고서

이 름	박신향	소 속	소재디자인공학전공
학 년	2	학 번	20170457
연수 국가	필리핀	연수 기관	WNU(에듀글로브)
연수 기간	2018.07.02.~2018.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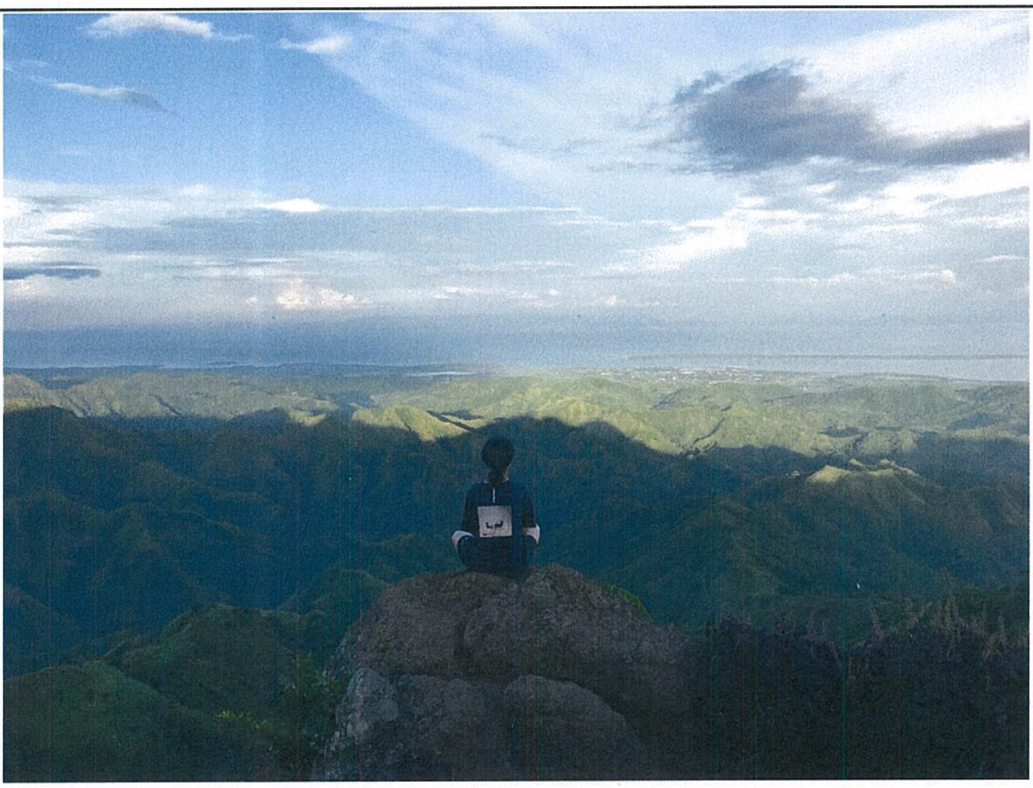
국내에선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6주간 하루 6시간씩 꾸준히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영어 작문이나 기본적인 회화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단기간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큰 변화는 기대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이왕이면 4주-6주캠프보다는 학기 중 진행되는 어학연수를 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토익이나 토익스피킹 수업이 없으므로 이를 목적으로 가는 것은 비추천하고 공강이나 방과후 시간이 생각보다 많으므로 이 때 볼 수 있는 토익 관련 교재와 인강을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룹 수업은 계명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데 금오공과대학교 인원이 현저히 적고 두 학교 간 일정이 조금씩 다르므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룹수업 진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Conversation시간 중 한번정도 야외수업을 진행하는 튜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수업을 함께 듣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튜터에게 개별적인 부탁을 통해 교내(도서관이나 다른 건물들)에서 만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재에 수록되어있는 질문을 하며 직접적인 소통을 해보시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며 저의 경우 이때 만났던 필리핀 친구들과 아직까지 연락하며 지내고 있는데 꾸준히 연락하며 영어로 소통하는게 기본적인 회화 문장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연수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관광도 좋지만 좀 더 현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관광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첨부해 둔 사진 중 Mayana peak은 필리핀 자연경관을 감상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지만 현지 버스를 이용해 가야하므로 정말 많은 현지인들을 접할 수 있으며 그만큼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셔야합니다. 인터넷에는 정보가 없으므로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담당자와 연락 후 가셔야합니다. The Ruins는 워낙 유명하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므로 블로그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광도시이기 보다는 교육도시에 가까우므로 비교적 안전하긴 하지만 필리핀 치안이 좋은 편은 아니므로 6-7명 이상씩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추천하며 특히, 멀리 이동할 시 긴장을 늦추지 않으시길 당부합니다.

수업엔 지각하더라도 절대 결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말을 많이 하셔야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많은 현지인들을 만나보시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갖고 저처럼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Mayana peak

▲The Ruins